



12면

'고상' 상금리 저석묘군 전북도 기념물 됐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음 8월 7일) 제28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가 유일한 필승카드”

정세균 전 총리, 야권 대선주자 국힘 홍준표 의원의 대항마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 전북에서 야권 대선 주자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언급하며 확실한 대항마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야권 대선 구도가 윤석열의 불안한 대세론에서 홍준표 후보로 바뀌고 있다”며 “윤석열을 상대로 작전을 짜던 민주당 대선 전략에 경고등이 끼진만큼 홍준표 후보를 이길 확실한 대항마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실이 여론조사에서 반증되고 있다”라며 “홍준표를 꺾고 대선승리를 이뤄낼 유일한 필승카드는 바로 저, 정세균”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 보수언론과 야당은 민주당 후보로 도덕성과 지질이 불안한 후보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불안한 후보로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84만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이번 1차 슈퍼 위크를 통해 변화가 시작되느냐를 알 수 있고 향후 경선 판을 결정 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최소 결선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판이 바뀐 만큼 대항

마도 바뀌어야 한다. 전북이 선택하면 정세균이 된다”고 말한 후 “도덕성, 안정감, 유능함, 확장성까지 네 박자를 갖춘 필승의 대항마 정세균이 민주당 대선승리, 정권재창출을 꼭 이뤄내겠다”며 “이번 추석이 분수령이 되는 만큼 다가올 호남대첩에서 정세균의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호상 기자

“혁신도시에 국부펀드 운영기구 유치”

박용진 의원, 전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된다면 전북혁신도시에 국부펀드 운영기구를 유치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공약으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 설립 완료, ▲새만금 및 전북지역 발전 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 전북도민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은 호남에서도 소외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밀려나온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분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타운 조성,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태계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세계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그는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분부와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는 자금을 가능하게 통합하고, 각종 연기금을 더해 총 1,200조원(현재 기준)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 금융 투자 수익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남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고 의과대학과 응급의료 전문 인력을 길러내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최종적인 결정은 미뤘으나 정치권내 합의 수준은 높은 편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관련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고발사주, 제2의 국정농단”

이낙연 전 대표, “정치검찰·국힘 유착관계 정황 드러나 특검 추진·국정조사 해야”...尹에 “진상규명 협조를”

대선 경선을 위해 전북지역 행보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급히 찾아 “증거와 분노를 급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개인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장 초안의 출처가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밝혀진 국민의힘 공식 계통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의 주체는 범죄혐의에 따라 공수처 검찰, 경찰이 맡는데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오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국한될 수 있는만큼 종합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대검에서 진행되는 진상 조사를 마무리 짓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강한 어조의 경고를 날렸다.

그는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적폐가 적폐를 수사하는 꼴이 자 범치 모독, 국민 배반이다”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조폭 언어를 중단할 것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겸손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협조 하라”고 일침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셀프조사를 한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발행과 셀프 조사 의사 의향을 듣고 제동을 걸기 위해 긴급하게 찾았다”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 공약, 꼼꼼히 챙기는 중”

조정식·정성호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조정식 의원과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이재명 지사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 갑)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간대회에서 “이 지사와 함께 전북 14개 시·군 공약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14일



이 지사가 전북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데,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 공약이

아니라 전북민의 별도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북에서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민주당 대의원은 700여 명, 권리당원은 7만5,000여명으로 비중이 크며 180만 도민과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성호 의원은 “호남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캠프에서도 전북과 광주·전남의 표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 일행은 간담회 직후 도내 여성 및 다문화 가정 등 800여명이 도의회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muju 무주군

Lohas 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디복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 한 여름 평균 기온 24℃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랭지 무주가 키웠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했습니다!”

무주반디복사이버장터 www.mj1614.com

www.mj1614.com 063)322-0278 / 320-2770